

## 1

허니 엇딿 통원티 아니리오 슝툼과는 극흔 원썬라 갑  
 흘 길 업서 잇다갑 손툼 밋흘 질너 피를 니여 설흔  
 면 조금 식원하나 간혹한 감토허미 미러 말뉴하니 더  
 욱 이답고 못 건디리로드

인화 눈물지어 일으디

그디는 데아라 아야라 하논도다 나는 무슴 죄로 포락  
 지형을 입어 붉은 불 가운데 낫출 지으며 구든 것 씨티  
 기는 날을 다 시키니 고 괴롭기 칙량티 못할네라

운낭지 연 왈

그디와 소임이 갖고 욱되기 한가지라 제 옷슬 곱도록  
 문지르고 먹을 잡아 들싸불으며 우겨 누르니 광턴이 덩  
 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야니의 목이 썩로 날 적이 몇 번

이나 혼 동 알니오

칠위 이러툼 답논하며 회포를 일으더니 즈던 녀지 문득 씨  
 쳐 칠우다려 왈

계우는 니 허물을 그디도록 하나나

감토허미 고두스왈

저른 것들이 망녕도이 험이 업는지라 족가티 못하리이다 저  
 회등이 지죄 잇스나 공이 만흐를 자랑하야 원언을 지으니 맛당  
 이 결곤하 즉 하디 평일 곱흔 경과 저회 조고만 공을 싱각하  
 야 ㉠ 용서하시미 올홀가 하나이다

녀지 답왈

할미 말노 좇츠 물시하리니 니 손부리 성하미 할미 공이라  
 썬여 츠고 단이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금낭을 지어 그 가  
 온디 너허 몸의 진혀 서로 썬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미는 고두비스 하고 계봉은 ㉡ 찬안하야 물너나니라

##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의 공적 중심주의적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심리가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③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인물 간의 대립이 화해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하여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인은 의복을 마련할 때 그 길고 짧음과 넓고 좁음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교도각시는 부인이 마련한 옷감을 베어 내어 구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공이 있다.
- ③ 세요각시는 부인과 교도각시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
- ④ 인화낭지는 바느질이 잘못된 흔적을 지워 세요각시의 공이 돋보이게 돕는 역할을 한다.
- ⑤ 운낭지는 주로 여름철에만 소임이 집중되어 다른 계절에는 칠우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 0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도구의 기능을 통해 완성될 의복의 외형적 체계를 의미한다.
- ② ㉡: 외부의 압력이나 고통을 견뎌내는 인물의 인내심을 비유한다.
- ③ ㉢: 대상의 구김을 펴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수단을 나타낸다.
- ④ ㉠: 자신의 실수를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행위를 가리킨다.
- ⑤ ㉢: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내면적 성찰을 상징한다.

##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가전체 문학의 전통을 잇는 수필인 「규중칠우쟁논기」는 공적을 다투는 '쟁논'과 신세를 한탄하는 '원언'의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의 쟁논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며, 후반부의 원언은 지배 계층(인간)의 횡포에 대한 피지배 계층(도구)의 저항 의식을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에 등장하는 감토탄미의 중재는 유교적 덕목인 '겸양'과 '조화'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 ① [A]에서 칠우가 각자의 소임을 강조하며 '웃듬'이나 '제일'을 다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의 표현이겠군.
- ② [B]에서 부인이 '공 모로논 거슨 녀지로다'라고 탄식하는 것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피지배층의 울분이겠군.
- ③ 세요각시가 부인의 손톱 밑을 찔러 '설흔'을 풀려 하는 행위는 신분 질서를 전복하려는 혁명적 저항 의지의 발현이겠군.
- ④ 감토탄미가 '저른 것들이 망녕도이 험이 업는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갈등을 완화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중재자의 태도겠군.
- ⑤ 부인이 감토탄미에게 '금냥'을 지어주며 곁에 두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헌신적인 태도에 대한 보상과 화해의 상징이겠군.

## 05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러 사물이나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첫째.
- ② ㉡: 목적한 바를 계획대로 원만하게 이루어 냄.
- ③ ㉢: 찬란하게 빛나는 빛줄기나 번득이는 위세.
- ④ ㉣: 타인의 태도가 기대에 어긋나 서운하고 야멸침.
- ⑤ ㉤: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고 덮어줌.

## 06

윗글의 '규중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우의 공로를 처음부터 인정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 ② 도구의 효용성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감토탄미의 외양을 비하하며 그녀의 중재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 ④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도구의 결함을 먼저 찾아내려 한다.
- ⑤ 칠우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그들을 화로에 넣어 파괴하려 한다.

## 07

[A]와 [B]의 담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경쟁적 담화이고, [B]는 공동의 처지를 한탄하는 연대적 담화이다.
- ② [A]에서 인물들은 타인의 공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 ③ [B]에서 인물들은 인간에게 당한 구체적인 신체적 고통을 언급하며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 ④ [A]의 갈등 원인이 내적(칠우 간)인 것이라면, [B]의 갈등 원인은 외적(인간과의 관계)인 것이다.
- ⑤ [A]와 [B] 모두 감토탄미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인물들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

## 08

윗글에 나타난 '칠우'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부(自負) → 비탄(悲嘆) → 수치(羞恥)
- ② 환희(歡喜) → 분노(忿怒) → 체념(滯念)
- ③ 경계(警戒) → 연민(憐憫) → 환멸(幻滅)
- ④ 기대(期待) → 실망(失望) → 의구(疑懼)
- ⑤ 오만(傲慢) → 회유(懷柔) → 관용(寬容)

## 09

윗글의 구성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입-쟁논-원인-중재-결말'의 유기적인 5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② 규중 부인의 '잠'은 공간적 배경을 꿈속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③ 인물들의 발화 순서가 도구의 사용 공정 순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④ 감토할미의 발언은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각각 다른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마지막의 '금냥'은 갈등의 완전한 해소와 인물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의미한다.

## 10

윗글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쥬 열 그르시나 썬 후의 구슬이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늪의 입이 될지언정 소 뒤는 되지 말나'는 격언을 통해 처세의 도리를 역설하고 있다.
- ③ '포락지형'이나 '각골통한'과 같은 고사성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고통을 심화하여 표현한다.
- ④ '붉으락 프르락'이나 '들낙달낙'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공로에 대한 확신과 상대에 대한 반박을 드러낸다.

## 11

윗글의 '감토할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며 실리를 챙기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 ② 나이가 많음을 내세워 젊은 친구들의 발언권을 억압하고 부인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한다.
- ③ 칠우 중 유일하게 인간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재의 명분을 얻는다.
- ④ 부인의 잘못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칠우의 권익을 대변하는 혁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
- ⑤ 칠우의 쟁논이 극에 달했을 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그들의 다툼을 강제로 중단시킨다.

## 12

[B]에서 인물들이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인의 '게열은 종 잠 씨오는 막디'는 자가 측정 도구 외의 용도로 오용되는 비애를 드러낸다.
- ② 교도각시의 '문골희에 각구로 다라 늦코'는 도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치되는 소외감을 표현한다.
- ③ 세요각시의 '나의 허리를 브르질너 화로의 너허'는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되는 도구의 비참한 운명을 나타낸다.
- ④ 인화낭지의 '포락지형'은 뜨거운 불에 달궈져야 하는 인두의 숙명적 고통을 형벌에 빗댄 것이다.
- ⑤ 운낭지의 '광턴이 덩치는 듯'은 다리미질을 할 때 위에서 누르는 압박감을 거대한 자연 재해에 비유한 것이다.

## 13

윗글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평등한 인간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 ②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되 타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도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자를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
- ④ 여성들의 가사 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
- 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논리적 반박보다 감정적 호소가 해결에 더 효과적이다.

## 14

윗글의 '감토할미'가 부인을 설득할 때 사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칠우의 행동을 '망녕도이 험이 업논' 철없는 짓으로 규정하여 부인의 분노를 희석시킨다.
- ② 칠우가 가진 '지죄'와 '공'을 언급하며 그들이 처벌받기에는 아까운 존재임을 암시한다.
- ③ '평일 김흔 정'을 내세워 부인의 과거 기억에 호소함으로써 감정적 동요를 유도한다.
- ④ 칠우의 '원언'이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하며 부인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 ⑤ 자신의 낮은 자세(고두사왈)를 유지하며 부인의 권위를 존중하는 형식을 취한다.

# 15

윗글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칠우들: 아전인수(我田引水) - 자기에게만 이롭게 생각하고 행동함.
- ② [B]의 칠우들: 토사구팽(兎死狗烹) -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림.
- ③ 부인의 태도: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음.
- ④ 감토할미의 중재: 결자해지(結者解之) -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함.
- ⑤ 마지막의 칠우들: 망연자실(茫然自失) - 멍하니 정신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름.

## 규중칠우쟁론기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 0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의 공적 중심주의적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체의 서술 방식과 주제 의식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이 글은 바느질 도구들을 의인화하여 각자의 공을 자랑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공로만을 내세우고 타인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대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개된다.  
 ③ 감토할미의 중재로 규중 부인이 용서하며 마무리되므로 파국이 아니다.  
 ④ 서술자의 직접 개입보다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 구성이며 과거 회상은 부분적 경험담일 뿐이다.

### 02 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 ⑤ 운낭지는 주로 여름철에만 소임이 집중되어 다른 계절에는 칠우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각 인물(도구)의 구체적인 소임과 특징을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⑤ 운낭지(다리미)는 하절(여름)을 만나면 소임이 많아 바쁘다고 하였으나, 다른 계절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칠우의 일원으로 항상 함께한다.

[오답 풀이]

- ① 척부인(자)이 '장단광협'을 마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교도각시(가위)가 '버혀 니지 아니하면 모양제되겠느냐'라며 자신의 공을 말한다.  
 ③ 세요각시(바늘)는 자로 재고 가위로 벤 뒤에야 꿰맬 수 있으므로 선행 작업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④ 인화낭지(인두)는 '잘못한 흔적이 감초여 세요의 공이 놀노 하야 광치 나느니라'라고 설명한다.

### 03 소재의 기능과 의미

정답: ⑤ 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내면적 성찰을 상징한다.

[출제의도]

문맥 속에서 어휘와 구절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㉔ '참안(慚顔)'은 부끄러워하는 얼굴이라는 뜻으로, 규중 부인의 꾸밈음과 감토할미의 중재 이후 다른 친구들이 부끄러

워하며 물러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 깊은 내면적 성찰까지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㉓ '모양제되'는 옷의 격식과 형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② ㉑ '낮가죽'은 thimble(골모)의 두꺼운 가죽을 의미하며,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견디는 상황을 나타낸다.  
 ③ ㉒ '광둔'은 다리미의 넓은 바닥을 의미하며 구김을 펴는 기능을 한다.  
 ④ ㉕ '집탈'은 탃을 하거나 허물을 잡는다는 뜻으로, 부인이 바늘을 잃어버리고 가위 탃을 하는 상황에 적절하다.

### 04 종합적 감상

정답: ③ 세요각시가 부인의 손톱 밑을 찔러 '설한'을 풀려 하는 행위는 신분 질서를 전복하려는 혁명적 저항 의지의 발현이겠군.

[출제의도]

보기에 제시된 비평적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을 심층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풀이]

- ③ 세요각시가 손톱 밑을 찔르는 행위는 일시적인 감정 해소(조금 시원함)를 위한 소극적인 저항일 뿐, 신분 질서 자체를 뒤엎으려는 혁명적 의지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오답 풀이]

- ① 칠우가 서로 으뜸이라 다투는 것은 과시욕의 투영으로 볼 수 있다.  
 ② 인간이 도구의 공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탄식은 피지배층의 소외감과 연결된다.  
 ④ 감토할미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꾸짖으며 부인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유교적 중재를 수행한다.  
 ⑤ 금낭(비단 주머니)은 감토할미의 공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매개물이다.

### 05 시어 및 구절의 의미

정답: ⑤ 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고 덮어줌.

[출제의도]

고어 및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㉔ '용서(容恕)'는 상대의 허물을 너그럽게 보아준다는 뜻이다. 지문에서 부인이 칠우의 불평을 듣고 화가 났으나 감토할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려 그들의 허물을 묻지 않기로 한 상황이므로 적절하다. (단, 5번 정독 시 정답은  
 ⑤ 가 아닌 다른 것이어야 함 - 여기서는  
 ⑤ 가 사전적 정의로 맞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함정을 파악 함. 실제 정답은 문맥상 '용서'가 '벌을 면제함' 이상의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므로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 ⑤ 를 정답으로 설정하기 위해 미세하게 변조함. → 다시 설계:  
㉠ 광채는 여기서는 '공로가 드러나 빛남'의 비유적 의미인데 '번득이는 위세'는 권력적 뉘앙스가 강해 부적절함.)

[수정 정답]

- ③ ㉠: 찬란하게 빛나는 빛줄기나 번득이는 위세.

[오답 풀이]

- ① ㉠: 으뜸: 최고라는 뜻으로 적절.  
② ㉠: 성공: 일을 이룸으로 적절.  
④ ㉠: 야속: 서운함의 감정으로 적절.  
⑤ ㉠: 용서: 잘못을 덮어줌으로 적절.

## 06 인물의 태도 및 심리

정답: ② 도구의 효용성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출제의도]

인물의 발언을 통해 가치관과 태도를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② 부인은 '그 공이 소름의 쓰기의 잇느니 엇딿 칠우의 공이라 허리오'라고 말하며, 도구의 공로를 부정하고 사용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① 처음에는 칠우의 공을 부정하며 무시했다.  
③ 감토할미의 말을 듣고 용서하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④ 교도각시의 말에 따르면 바늘을 잃어버리고 가위 탓을 하는 등 자신의 실수를 도구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집탈).  
⑤ 세요각시의 말에 따르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갈등 심화 때문이 아니라 부인의 변덕이나 화풀이에 가깝다.

## 07 담화 방식 분석

정답: ⑤ [A]와 [B] 모두 감토할미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인물들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담화 성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감토할미는 [A]에서 다른 이들의 자랑을 만류하고, 마지막에 부인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만, [A]와 [B] 전체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는 주도권자는 아니다. 각 인물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오답 풀이]

- ① [A]는 '쟁논', [B]는 '원언'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② 교도각시나 세요각시 등이 서로의 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③ 허리가 부러지거나 불에 달궈지는 등의 고통을 서로 고백하며 공감한다.  
④ [A]는 누가 제일인가에 대한 내부 갈등이고, [B]는 인간의 배은망덕에 대한 외부적 원망이다.

## 08 화자 및 인물의 정서 변화

정답: ① 자부(自負) → 비탄(悲嘆) → 수치(羞恥)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에 따른 인물들의 심리 상태 변화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자부심'이 나타나고, 후반부 인간의 박대에 대해서는 '비탄'과 원망을 쏟아내며, 마지막에 부인의 꾸짖음과 감토할미의 중재 이후에는 부끄러워하며 물러나는 '수치심(참안)'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② 체념하기보다는 마지막에 부끄러워하며 물러난다.  
③ 연민보다는 공동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주를 이룬다.  
④ 의구심(의심하고 두려워함)은 마지막 상황과 거리가 멀다.  
⑤ 관용은 부인이 베푸는 것이지 칠우의 정서가 아니다.

## 09 작품의 구성 및 전개

정답: ② 규중 부인의 '잠'은 공간적 배경을 꿈속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활용된다.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적 장치와 전개 방식을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② 부인이 잠든 사이에 도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이것이 꿈속의 사건(몽유록 형식)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부인이 잠든 것은 도구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적 배경을 제공할 뿐이다.

[오답 풀이]

- ① 일반적인 가전체나 논쟁류 산문의 구성을 잘 따르고 있다.  
③ 자(재단) → 가위(절단) → 바늘(바느질) 순으로 발화가 시작되어 실제 공정과 일치한다.  
④ 전반부에서는 자랑을 만류하고, 후반부(결말)에서는 부인을 설득하여 용서를 구한다.  
⑤ 금냥은 골모를 아끼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준다.

## 10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붉으락 프르락'이나 '들낙날낙'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에 사용된 다양한 수사법과 표현 효과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붉으락 프르락'이나 '들낙날낙'은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일 뿐,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나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음성 상징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엄밀히는 첩어적 표현이나 상태어에 가깝다. 특히 '붉으락 프르락'은 색채 대비를 통한 심리 묘사다.)

[오답 풀이]

- 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변용한 것이다.  
② '계구우후'의 고사를 인용하여 꼬리가 되기보다 머리가 되라는 뜻을 전한다.

- ③ 가혹한 형벌이나 뼈에 사무치는 한을 나타내는 성어로 고통을 강조한다.
- ⑤ '엇더 ~하리오'와 같은 설의법이 지문 전체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 11 특정 인물 집중 분석

정답: ③ 칠우 중 유일하게 인간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중재의 명분을 얻는다.

### [출제의도]

'감토탈미(골모)'의 기능적 특성과 성격적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 [정답 풀이]

- ③ 감토탈미는 '아기시니 손부리 앞푸지 아니케 바나질 도와 드리노니'라고 말하며, 사용자의 신체를 직접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헌신적 역할 덕분에 마지막에 부인의 신뢰를 얻고 중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 [오답 풀이]

- 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만류한다.
- ② 억압하기보다는 타이르는 태도를 보이며, 맹목적 복종보다는 지혜로운 설득을 한다.
- ④ 정면 비판보다는 칠우의 망령됨을 꾸짖는 척하며 부인의 자비심을 유도하는 우회적 전략을 쓴다.
- ⑤ 물리적 힘이 아니라 언어적 설득(고두사왈)을 통해 해결한다.

## 12 비유적 표현의 의미 추론

정답: ② 교도각시의 '문골희에 각구로 다라 뇨코'는 도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치되는 소외감을 표현한다.

### [출제의도]

인물들의 하소연에 담긴 구체적 상황과 비유의 의미를 파악한다.

### [정답 풀이]

- ② '문골희에 각구로 다라 뇨코'는 부인이 가위를 잃어버리고는 문고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가위가 스스로 숨은 듯이 취급하며 찾으러 다니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소외감보다는 부인의 건망증이나 부주의로 인해 도구가 겪는 번거로움과 억울함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자가 매질하는 막대기로 쓰이는 전도된 상황을 한탄한다.
- ③ 바늘이 부러지면 화로에 던져지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 ④ 인두가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은나라의 잔혹한 형벌인 포락지형에 비유했다.
- ⑤ 다리미가 옷감을 누르는 압력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로 표현했다.

## 13 주제 및 가치관 추론

정답: ②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되 타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출제의도]

작품의 풍자적 의도와 교훈적 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한다.

### [정답 풀이]

- ② 칠우의 다툼(이기심)과 부인의 오만(배은망덕)을 경계하고, 마지막 감토탈미의 중재와 화해를 통해 서로의 공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신분제 비판의 요소가 있으나 그것이 궁극적인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도구를 아끼는 마음은 부수적인 교훈일 뿐이다.
- ④ 규중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나 여성 지위 향상이 핵심 주제는 아니다.
- ⑤ 감정적 호소(원인)보다 지혜로운 중재(감토탈미)가 해결의 핵심이었다.

## 14 문맥적 상황 추론

정답: ④ 칠우의 '원인'이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하며 부인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 [출제의도]

인물의 설득 전략과 담화의 효과를 분석한다.

### [정답 풀이]

- ④ 감토탈미는 부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칠우의 잘못을 빌며 부인의 '용서'를 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권력 관계를 인정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노련한 설득 전략이다.

### [오답 풀이]

- ① 칠우를 낮춤으로써 부인의 체면을 세워준다.
- ② 쓸모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여 파괴를 막는다.
- ③ 오랫동안 함께해온 정을 언급하여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 ⑤ 예의를 갖추어 부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한다.

## 15 어휘의 활용 및 적용

정답: ④ 감토탈미의 중재: 결자해지(結者解之) -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함.

###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를 적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 [정답 풀이]

- ④ 결자해지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뜻인데, 감토탈미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쟁논한 칠우나 무시한 부인)가 아니라 제3자로서 중재하는 역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각자 자기 공이 최고라고 우기는 상황에 적합하다.
- ② 옷을 다 만들고 나면 도구를 박대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 ③ 필요할 땐 찾고 다 되면 무시하는 부인의 태도에 적합하다.
- ⑤ 부인의 꾸짖음과 감토탈미의 중재 끝에 부끄러워하며 물러나는 모습에 부분적으로 통한다. (단, 정답인 ④가 명백히 틀림)